重紐 r介音說 考略

朴元基*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重紐의 諸理論
3. 重紐 r介音說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20C초 Karlgren에 의해 현대적인 중국 음운학 연구가 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重紐문제는 학자들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 있다. 그것은 重紐문제를 실제음운현상으로 인정할 경우 야기되는 복잡한 분석상의 난해함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重紐현상이 안고 있는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통시적·공시적 측면에 있어서 다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重紐현상이 ≪切韻≫등의 中古音자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하나 단지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그 성격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운 면을 지니고 있다.

重紐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上古내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일찍이 董同龢가 重紐와 上古韻部와의 관계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나 정작 中古音에서 나타나는 重紐현상자체에 대해선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후 서방에서 重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출현하였는데 바로 60년대 이후 Pulleyblank 등이 주장한 r介音說이 그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重紐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는 게 사실이지만 r介音說이 출현한 이후 다수의

* 高麗大 中文科 博士課程

학자들이 이 이론에 바탕 하여 重紐문제를 보고 있으며 아울러 이것을 가지고 上古音과 中古音간의 각종 음운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 중국음운학계에서 일파를 이루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重紐 r介音說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현재 r介音說로 인정되고 있는 주요 이론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의 공통적인 특징 및 장·단점을 찾아내어 重紐현상 분석의 또 다른 해결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重紐의 諸理論

본격적인 r介音說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먼저 현재까지 세기되어 온 각종의 重紐이론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자. 여기에는 먼지 重紐현상을 실제음운현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1]과 실제음운현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지금은 重紐가 실제 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므로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重紐를 연구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重紐 兩類간의 음운차이에 대한 재구가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여기서는 이것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보았다.

1) 主要母音說

이것은 重紐3·4等字의 음의 차이가 主要母音에 있다는 설이며 董同龢, 周法高,

---

1) 19C 陳澧가 처음으로 ≪廣韻≫의 反切을 계련하면서 重紐현상을 발견한 이래 몇몇 학자들은 이를 실제 음운현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章炳麟, 黃侃 등은 重紐현상을 일종의 '同音異切'현상으로 보아 ≪切韻≫이 ≪聲類≫나 ≪韻集≫ 등의 前代 韻書反切을 그대로 계승수록하면서 한 韻으로 합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重紐현상을 해석하고 있고, 비체계적인 反切이므로 실제 語音과는 거리가 있다고까지 주장했으며 그들의 견해는 지금까지도 王力(1981) 등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張琨 등이 대표적이다.

董同龢(1945, 1998:164)는 重紐4等字와 3等字를 각기 '1類와 '2類로 명하였고, 그 중 2類字에는 "˘"표시를 하여 구분했으며 "央母音에 가까운 三等母音"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이러한 主要母音의 차이는 重紐兩類가 上古의 각기 다른 韻部에서 내원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보았다.

周法高(1945)는 기본적으로 董同龢의 견해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특히 現代方言의 상황이 主要母音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介音의 차이로 할 경우 上古音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主要母音차이를 주장했다. 그리하여 董同龢보다는 다소 분명하게 兩類간의 主要母音차이를 재구하였다.

張琨(1976)은 ≪切韻≫이 ≪詩經≫중심의 北方系統語音과 非≪詩經≫系의 南方系統語音이 합병되어 나타난 산물이라 보고 있어 重紐현상도 이를 기반으로 설명한다. 그는 ≪切韻≫의 3等韻엔 a(重四), b(重三), c(純三)의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서 이들의 主要母音이 모두 다르다고 하였다. 그것은 ≪詩經≫계통의 音이 "a : b c(b,c가 유사하고 a는 다르다)"였고, 非≪詩經≫계통의 音(주로 閩方言이나 日本 吳音에 남아 있다)이 "a b : c(a, b가 유사하고 c가 다르다)"였다가 이 두 계통이 ≪切韻≫에 와서 통합되면서 아예 'a : b : c'의 형태로 갈라졌기 때문이란 것이다. 어쨌든 그도 결국 重紐兩類간의 차이를 主要母音의 차이로 보고 있다.

2) 介音說

이들은 重紐兩類간의 차이를 介音에 두고 있다. 일찍이 日本의 有坂秀世 등이 1930년대 처음으로 重紐문제를 논할 때 이미 介音의 차이를 주장한 바 있으며 그 뒤 藤堂明保 등도 이를 계승하여 역시 介音차이를 주장했다. 中國에는 대표적으로 陸志韋, 王靜如, 李榮, 邵榮芬 등이 있으며 3장에서 자세히 다룰 r介音說 또한 中古시기의 重紐兩類간 차이를 介音에 두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먼저 有坂秀世의 경우를 보면, 그는 Karlgren의 三四等介音을 비판하면서 韓國漢字音과 越南漢字音 등을 이용하여 重紐兩類의 介音을 재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B類의 介音을 ï 로 A類의 介音을 i 로 재구하였으며 A類와 重紐韻內의 舌·齒·半舌

半齒音이 同類이고 그중 莊系만이 B類와 同類라고 주장하였다.

藤堂明保(1957:181-191) 또한 有坂秀世와 비슷한 자료를 바탕으로 重紐를 재구하였고 역시 介音에 차이를 두었으나 약간 다른 재구를 하였다. 그는 B類의 介音이 A類보다 약하고 느슨하며 중설적인 음이라 보아 이를 -r-介音이 들어간 -rj-로 재구했고 A類의 介音은 -j-로 재구하였다.[2)]

陸志韋(1947)와 王靜如(1941, 1948)는 重紐兩類간 聲母와 介音 모두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B類의 聲母가 圓脣化音을 갖고 있어 A類와 구별된다고 보았고 介音도 B類엔 -I-, A類엔 -i-를 두어 각 類의 聲母와 어울리게끔 설정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재구를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3)]

Pw I(w)- / Pi(w)- , Kw I(w)- / Ki(w)-

李榮(1956:140-141)도 介音의 차이로 보아 B類의 介音을 -j-, A類의 介音을 -i-로 재구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董同龢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重紐韻內의 舌·齒音과 A類가 같은 類이고 B類를 獨立類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A類의 介音(-j-)을 전체 3等韻의 介音과 같은 것으로 보아 重紐의 구분표지를 B類에 두고 있다.

邵榮芬(1982:70-80)은 介音의 차이를 주장하지만 앞의 李榮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B類의 介音을 -i- 로 보아 기타 3等韻들과 같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A類의 介音이 -j-로서 독립적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董同龢와 李榮에 비해서 그는 B類가 重紐韻內 舌·齒音과 같은 類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의 일파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鄭仁甲(1984)을 비롯해, 韓國의 文璇奎(1985), 崔玲愛(1999) 등도 모두

---

2) 藤堂明保의 이론에서 처음 r介音이란 개념이 등장하나 본고에선 r介音說에서 이를 제외시켰다. 우선 여기에 대해 龔煌城(1997)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藤堂明保가 일찍이 中古音의 重紐3,4等을 각기 -rj-와 -j-로 재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r-을 가벼운 中立母音化(centralization)를 대표하는 介音성분으로 보았고, 결코 이것을 하나의 독립적인 분절음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그는 r介音說의 시초자를 Pulleyblank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r介音說과 藤堂明保의 이론이 다른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來母複聲母說을 들 수 있는데 비록 藤堂明保가 r介音을 운운했지만 결정적으로 이를 來母複聲母이론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 본고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3) 이들이 비록 聲母와 介音모두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그들이 Cw와 -I- 두 개를 다 설정하는 것은 분명 음소적 각도에서 볼 때 잉여성분이라 할 수 있어 본고에선 介音說로 본다.

重紐兩類간의 차이를 介音에 두고 있다.[4)]

3) 聲母說

이들은 重紐兩類간의 차이를 聲母에 두고 있는데 다시 두 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反切上字一類說, 反切上字二類說[5)]

전자의 경우 李新魁가 대표적인데 그는 聲母의 音色에 차이를 두고 '聲母주체부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重紐의 反切上字가 한 類라 주장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엔 黃典誠, 杜其容, 平山久雄 등이 있고 이들은 공히 反切上字가 두 類로 계련 된다고 주장한다.

黃典誠(1994)은 重紐兩類가 口蓋音化聲母와 非口蓋音化聲母의 차이라 주장하여 聲母자체가 다른 것으로 보았다. 그 외 학자들도 이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 反切上字가 兩類로 계련 된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聲母자체가 다르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어 李新魁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의 重紐이론에 대하여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이론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긴 하나 현재는 대체로 介音說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추세이다. 이는 곧 主要母音說이나 聲母說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主要母音說의 경우는 韻書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韻書에서 매 韻은 단지 하나의 主要母音만을 갖게 된다. 즉, 하나의 韻目아래에 主要母音이 두 개 이상씩 존재한다면 이는 ≪切韻≫편찬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6)]

---

4) 鄭仁甲은 A, B類 介音을 각기 i와 ï 로 보았고 文璇奎는 j와 ï 로 보았다. 崔玲愛는 介音 j가 있는 것을 A類로, 介音 j가 없는 것을 B類로 보았다.

5) 이것은 원래 麥耘(1998)이 구분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는 "一是B類爲脣化音, 一是A類爲顎化音" 이란 표현을 쓰고 있으나 본고에선 이를 反切上字系聯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바꾸어 보았다.

6)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까지 나눈다"(剖析毫釐, 分別黍累) ≪切韻·序≫
"우리가 ≪切韻≫의 음가를 재구하는 것은 ≪切韻≫의 매 韻이 다만 하나의 主要母音만을 갖고

그다음 聲母說에서 '反切上字二類說'은 A類와 B類에 따라 각기 다른 聲母를 설정하고 있는데 余迺永(1985:176-177)은 이것이 사실상 음소자체의 차이가 아닌 이음에 불과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이러한 이음현상을 유발시킨 介音이나 主要母音의 차이를 인정하고 마는 셈이 된다. 李新魁의 '反切上字一類說'의 경우 鄭張尙芳(1995)은 그가 주장하는 聲母의 圓脣化音色이 사실상 r介音이 변화하여 이루어진 介音- ɯ -라고 한다. 그리고 合口介音이 聲母의 圓脣化音色에서 나온다는 그의 주장을 살펴볼 때 重紐3等의 특징도 같은 데서 찾고 있는 점이 상당히 무리한 설정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主要母音說과 聲母說은 그 이론적 타당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반면 介音說은 重紐字의 反切行爲가 보여주고 있는 음운정보 및 對音, 域外音 등의 자료에 의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3. 重紐 r介音說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는 각종의 重紐이론 가운데서 介音說이 그 타당성을 인정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介音說 가운데 r介音說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본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각종 r介音說

본 절에서는 r介音說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론들은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 중 Pulleyblank는 최초로 r介音說을 주장한 이라 독립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의 견해는 후기에 나온 논문에서 兪敏 등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세 부류 중 Baxter는 r介音이 上古에서 中古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성을 주면서 탈락하였다고 보고 있고, 鄭張尙芳과 潘悟雲은 r介音이 中古로 오면서 그 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만약 ≪切韻≫에 나타나는 同一韻 내에서도 重紐현상을 主要母音의 차이로 본다면 이는 곧 위의 가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邵榮芬(1982 : 123)

체가 介音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으며 俞敏, 施向東, 劉廣和, 麥耘 등은 r介音이 -ɹ-로 변했다고 본다.

(1) Pulleyblank(蒲立本)의 이론

r介音說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Pulleyblank(1962:12)는 中古시기 重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 "重紐3等과 重紐4等은 喉音, 舌根音, 脣音만 있고 前舌高母音(e와 i)에서만 출현한다. 기타의 상황 하에선 兩類介音이 차이가 없고 이를 간단히 -ɨ- 로 표기한다. 兩類介音이 대립되는 곳에선, 하나를 -j-, 다른 하나를 -ɨ-라 표기한다."

그는 B類介音을 -i- 라하고 A類介音을 -j-라 했는데 여기서 -i-는 -ɨ- 와 같다고 했다.

中古에서의 위와 같은 介音차이에 대해 Pulleyblank(1962:67-70)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ɨ-의 탈락은 i와 ə 앞에 介音 -ɨ-를 분화시켰는데 특히 舌根音, 脣音 뒤의 -j-를 後化의 -ɨ-로 만들었다. 卷舌音은 重紐3等韻을 反切下字로 쓰는 경우가 많고 역으로 卷舌音이 重紐3等의 反切下字로 쓰이는 경우도 보인다. 複聲母 성분 -ɨ-은 단순히 탈락하지 않고, 모종의 母音性성분으로 변화했다."

B類의 介音특징이 上古의 -r-에서 왔다는 설은 바로 Pulleyblank가 처음 주장한 것이다.(Bodman 등에 의해 上古 來母가 r-, 以母가 l-이라 밝혀진 후 l 과 r 을 구별해 쓰는 편이다.) 즉, 기본적으로 이 이론은 來母複聲母說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上古의 *Cr- 의 -r-성분이 中古의 B類介音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가 中古의 A,B類 介音으로 상정했던 -ɨ- 와 -j-의 차이는 곧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는 또 후의 논문(1984:172-174)에서 A類介音을 -ji-, B類介音을 -i-라 했으며 B類의 -i-가 ri 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말한 中古는 EMC로서 重紐의 차이가 介音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며 이 역시 上古 r介音의 殘存이라 볼 수 있다.

(2) Baxter(白一平)의 이론

Baxter는 Pulleyblank의 이론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中古시기의 EMC, LMC 구분이다.[7] 그리고 Pulleyblank에 의해 시작된 重紐3等과 r介音의 결합이론 또한 그에 의해 더욱 보충되었다.

Baxter(1992:75-81)는 中古(EMC)시기의 重紐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i) 中古시기 B類介音은 -j- 나 -ɨ-로 표기, A類介音은 -ji-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ii) 서로간의 反切用字상도 차이가 있는데 B類는 대부분 B類字를 反切下字로 쓰고, A類는 A類字나 舌·齒音字를 사용한다.
iii) 重紐韻內에 존재하는 舌·齒音 聲母뒤에선 A類·B類의 차이가 없다(neutralized, 中和).
iv) 庚·淸韻은 각기 B類와 A類로서 하나의 重紐雙을 이루고 있다.
v) 幽韻은 A類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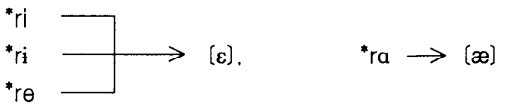
그는 中古의 重紐차이를 위처럼 표기하여 일단 介音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다만 그것의 확실한 음가차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도식적인 구분이라고만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그가 r介音說과 연관시켜 언급한 重紐형성과정을 살펴보자. Baxter(1992:258-287)는 Pulleyblank의 '*-rj-가설'을 접수하여 2等韻과 3等韻의 변화상황을 *r-color, *r-loss 등의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i) 上古의 2等韻은 *-r-介音을 갖고 있었고 3等韻은 *-j-와 *-rj-介音을 갖고 있었다. 中古로 오면서 r의 특성에 의해 主要母音이나 介音에 변화가 생겨 2等韻과 重紐韻이 형성된 것이다.
ii) 2等韻은 *r-color, *r-loss에 의해 다음과 같은 主要母音의 변화가 생긴다.

---

7) 이는 Pulleyblank(1984)가 쓰기 시작한 용어로 EMC(Early Middle Chinese)는 ≪切韻≫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중고음체계를 가리키고 LMC(Late Middle Chinese)는 唐京雅音에 근거한 韻圖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중고음체계를 가리킨다. 기존의 중고음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설명한 이론으로 현재 학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r-color 에 의해 뒤의 母音의 성질이 변하여 일종의 이음(allophone)이 형성되고, 다시 *r-loss에 의해 r이 탈락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음소가 되는 것이다.

iii) 重紐의 경우 다음의 *-rj- 가설을 적용한다.

*-j- + front vowel > 中古의 A類

*-rj- + back or front vowel > 中古의 B類

그는 r介音說을 주장하고 있으나 中古의 重紐차이에 있어선 정확한 언급을 안하고 있다. 따라서 主要母音說과 介音說 모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의 r介音說 또한 이 모두에 적용시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선 介音분석법을 소개한다.

A類와 B類의 대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가설들이 필요하다.

① *r-color : V → [-back], [-tense] / r(j) _

② *ɑ-raising : V → [-low] / j _ [+coronal]

③ jɛ > je

④ *j-backing : -j- → [+back] / r _

⑤ *r-loss

위의 ①-③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선 主要母音이 같아지고 ④에 의해 介音에 차이가 발생하며 ⑤에 의해 하나의 대립된 음소로 발전하는 것이다.

<표1>

	*-jɑn	*-rɑn	*-rjɑn	*-jen	*-ren	*-rjen	*-en
*r-color	-	[-rᵉn]	[-rjᵉn]	-	[-rjɛn]	[-rjɛn]	-
*ɑ-raising	[-jʌn]	-	[-rjɛn]	-	-	-	-
jɛ > je	-	-	[-rjen]	-	-	[-rjen]	-
*j-backing	[-ïʌn]	-	[-rïen]	-	-	[-rïen]	-
*r-loss	-	[-ᵉn]	[-ïen]	-	[-ɛn]	[-ïen]	-
result	/-ïʌn/	/-ᵉn/	/-ïen/	/-jen/	/-ɛn/	/-ïen/	/-en/
MC	-jon	-ᵉn	-jen	jien	-ɛn	-jen	-en

만약 介音說쪽으로 해석한다면 그의 이론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알 수 있다. : 上古의 서로 다른 韻部에 속했던 것이 *-r-이라는 특수한 요소에 의해 먼저 主要母音이 같아지고 介音에 차이가 생겨 EMC의 重紐현상이 탄생하였다.

(3) 鄭張尙芳과 潘悟雲의 이론

먼저 鄭張尙芳의 견해를 살펴보자. 鄭張尙芳(1997) 역시 重紐3等의 r介音기원설을 주장한다. 그는 특히 重紐의 내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王靜如, 陸志韋, 李新魁 등의 圓脣化聲母說, 董同龢의 上古韻部說 등을 비판하면서 來母複聲母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의 重紐說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上古의 等의 구조[8]

크게 長母音과 短母音으로 나뉘고 中古의 3等은 모두 이 短母音에서 내원했다. 中古의 2等과 B類는 上古에 -r-介音이 있었다. 반면 1·4等이나 A類 및 일반3等 韻은 介音이 없거나 -j-介音이 있었다. 특히 B類는 모든 母音에 고루 분포한다.

〈표2〉

	介音	前舌母音	央後母音
長母音	-0-, -j-	四等	一等
	-r-	二等	
短母音	-0-, -j-	A類	C類
	-r-	B類	

8) 鄭張尙芳(1987)은 3等韻이 차지하는 비율이 4개 等중 절반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上古主要母音을 크게 長·短으로 나누었고 그중 短母音은 그 앞에 j 가 파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불균형상태인 音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j 가 파생된 것이며 長短이 사라진 후 이것이 洪細의 대립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② r介音의 영향 및 변화

-r-은 뒤의 모음을 前高化시킨다. -r-자신은 -ɯ-로 변한 뒤 介音 -j-와 결합하여 -ɨ-로 변하고 결국 -i- 가 된다. 즉, 上古에서 中古(LMC)에 이르기까지 다음의 변화를 겪는다.

r > ɤ > ɯ > ɯ > ɨ > i

-r-은 聲母에 대하여 前化작용을 막으므로 輕脣化와 舌齒化를 저지시킨다.

③ 重紐는 前期中古 이후의 변화과정에서 그 흔적이 남거나 韻系分合의 중요조건이 된다. ≪韻鏡≫, ≪慧琳音義≫, ≪中原音韻≫, ≪古今韻會擧要≫, ≪聲音唱和圖≫및 각종 域外音, 현대방언에 아직도 B類와 A類간의 차이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다.

鄭張尙芳의 설이 기타설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r-介音의 변화설'에 있다. 위에서 본 Baxter의 경우 *r-color, *r-loss 등의 설을 주장한데 비해 鄭張尙芳은 -r-이 上古시기부터 後期中古시기까지 子音性에서 母音性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r > ɤ > ɯ > ɯ > ɨ > i
└ 자음성 ┘ └ 모음성 ┘

다음은 潘悟雲의 이론이다. 潘悟雲의 기본적인 내용은 鄭張尙芳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重紐와 r介音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거의 같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2等의 介音문제(潘悟雲, 許寶華 1994)

中古시기 2等은 -ɯ-介音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물론 上古의 *-r-에서 내원한 것이다. 中古의 2等介音은 현대 각 방언에서 -i-, -u-, -y-, -ø- 의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中古시기엔 -ɯr-로 잡을 수 있다.

② 中古시기 重紐의 상황(潘悟雲 2000:21-45)

i) 重紐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V \\ -low \\ +front \end{bmatrix} \quad \begin{bmatrix} E \\ -back \end{bmatrix}$$

즉, 主要母音은 i·ɵ·ɛ 등이고 韻尾는 -n·-t·-i·-m 등이다.

ii) B類의 介音은 -ɯi-의 雙介音인데 이것은 鄭張尙芳의 이론을 따른다.

iii) 中古 重紐구별이 介音에 있다는 것은 反切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介音의 反切行爲는 反切上字에도 나타나고 反切下字에도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重紐의 反切行爲 또한 이러한 介音의 상황과 같으므로 介音의 차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iv) 重紐韻내에 있는 舌·齒音字의 韻類는 다음과 같다.

以母·精組·章組·日母·泥母字는 A類와 가깝다.

云母字와 莊組字는 B類에 가깝다.

知組·來母·娘母字는 A類와 B類의 사이에 있다.

일반적으로 口蓋音의 介音을 -i-, 卷舌音의 介音을 -ɯr-라 할 때 知·來·娘母字는 그 발음부위가 章組보다는 뒤, 莊組보다는 앞이라 -i-와 -ɯr-의 중간 정도라 볼 수 있겠다.

v) 庚三과 淸韻, 尤와 幽韻, 蒸과 東三韻은 각기 重紐의 대립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介音은 -ɯr-였으나 異化(-u, -ŋ韻尾에 의한)에 의해 -i로 변화했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므로 이들을 진정한 重紐와는 구별하여 重紐類라 칭한다.

潘悟雲은 여러 면에서 鄭張尙芳에 동의하고 있으나 中古시기의 B類介音에 대해선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鄭張尙芳의 -ɣ-가 일종의 子音이므로 複聲母의 성격을 갖는다하여 여기에 반대했다. 즉 이미 中古시기 이전에 複聲母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ɣ-가 아닌 母音性의 -ɯr-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4) 兪敏·施向東·劉廣和·麥耘

兪敏(1984)은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r·r 을 '乙上乙去聲'이라 쓴 것을 바탕

으로 B類의 '乙'을 ʔrid, A類의 '一'을 ʔyid 로 재구했다. 〔표 3〕은 그가 재구한 몇 가지 重紐字의 音이다.

<표3>

重紐三等	筆 prid	密 mrid	蹕 krid	乙 ʔrid	△ ɣrid
重紐四等	必 pyid	蜜 myid	吉 kyid	一 ʔyid	逸 yid

그는 또 陸志韋가 中古의 B類介音으로 설정한 I 가 上古의 *-r-에서 나온 것이라 했다.

施向東(1983, 1994) 역시 兪敏과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玄奘의 梵漢對譯音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 重紐3等과 重紐4等의 介音은 다르다.
> 重紐4等 : 企 khyɑ　　吉 ki(= kyi)
> 重紐3等 : 姞 grid　　訖 krɪt

玄奘譯音 중 -y-介音을 갖는 梵語音節은 B類字로 對譯하지 않고 A類字로 한다. 자료를 통해 보면 당시(唐初)의 B類介音이 r 로 나타나지만 唐初中原方音에는 有聲齒槽顫動音〔r〕은 없었다. 아마도 有聲齒槽接近音의 〔ɹ〕일 것이다.

그는 또 陸志韋가 주장한 I 가 ɹ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來母複聲母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는 來母複聲母의 소실연대가 東漢三國시기쯤이라 주장한다.[9] 즉, 적어도 漢이후 魏晋시기에는 來母複聲母가 없어졌으며 來母 또한 *r- > l- 로 음가가 변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ɹ-의 음가는 아마도 이 시기쯤 *-r-의 성질을 벗어난 상태일 것이다.

劉廣和(1988) 또한 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梵漢對音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唐代 승려인 不空의 譯咒자료에 사용된 重紐字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9) 여기서 그는 漢이후 갑자기 來母字가 증가했다고 말하는데 來母複聲母字들 중 일부가 來母로 변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한다. 이것은 곧 來母複聲母의 소실을 의미한다.

漢字	乙	器	祇	吉
讀音	〔ʔɹit〕	〔K'ri〕	〔g'i〕	〔Kit〕
對音	r	Ksi	ghi	Kil

위에서 '乙'과 '器'는 重紐3等字이고 '祇'와 '吉'은 重紐4等字이다. 여기에서 그는 B類字를 가지고 주로 권설성의 음을 對音하고 A類字를 가지고 주로 비권설성의 음을 對音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또 B類字에서 발견되고 있는 r介音은 唐代 당시에는 없었고 이것은 舌尖後半元音 〔ɹ〕의 상태일 것이라 보았다.

麥耘(1992)은 ≪王三≫중 8개 重紐韻과 庚韻, 淸韻의 反切에 대해 통계적인 분석을 하여 重紐反切의 反切行爲의 특징을 찾아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그는 重紐 兩類의 介音과 舌·齒音의 介音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B類·喩三·莊組·知組·來母 : - rj -
A類·章組·精組·日母·喩四 : - j -

여기서 그는 A類의 介音이 전형적인 '舌面前顎介音'이고 B類의 介音은 卷舌性의 음이라 했는데 그 역시 비록 표기는 'r'이라 했지만 有聲齒槽顫動音이 아닌 단지 卷舌적인 음색을 나타내는 음이라 본 것이다.

이상의 네 명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B類字의 介音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그들이 표기상 비록 r 자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반영하는 것은 上古에 존재했던 *-r-介音 자체는 아니다. 上古의 介音 *-r-은 독립적인 분절음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 中古시기 重紐3等字에 나타나고 있는 r 은 독립적인 분절음이 아닌 하나의 介音의 음색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앞의 Pulleyblank의 후기 설도 결국 이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r介音說제 이론의 공통점

지금까지 주요 r介音說들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물론 세세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들 상호간에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단일한 이론 체계로 묶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적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공히 來母複聲母說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Pulleyblank가 최초로 重紐와 複聲母이론을 접목시킨 후 그 뒤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접수하였으며 r介音說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왔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上古의 來母는 *r-이었고, B類字들은 모두 이 *-r-을 介音으로 갖는 複聲母의 상태였다는 것이다.

둘째, 그들은 重紐韻내의 舌·齒音字의 韻類에 대해 대체로 2분적 태도를 취한다. 즉, 卷舌性의 莊系·知系는 B類와, 그 외의 舌·齒音字는 A類와 각각 연결시키고 있다.[10] 이것은 일찍이 陸志韋(1947:28)가 언급했던 다음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다.

> "章系·日母·喩四·精系는 사실상 A類와 同類로서 介音이 -j- 이다. 莊系·知系는 B類와 同類라 할 수 있으며 介音은 -ɹ- 이다."

셋째, 그들은 2等韻의 上古介音도 *-r-이라 잡는다.

이것은 최초로 雅洪托夫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그는 2等字엔 中古의 來母字가 없고 2等字중 來母와 諧聲되거나 異讀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2等字 舌·齒音은 中古에 卷舌音化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또한 *-r-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B類와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넷째, 그들은 B類介音의 표기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으나 결국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던 r介音說 各家의 'r'에 대한 견해를 크게 다음처럼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Pulleyblank, 兪敏, 施向東, 劉廣和, 麥耘 등은 *-r- 의 卷舌音적 성격이 中古까지 남아있다고 보면서 中古音에서의 표기를 -r- 또는 -ɹ-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鄭張尙芳과 潘悟雲은 上古의 *-r-이 中古까지 꾸준히 변화하여 LMC에선 -j-까

10) 물론 이점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귀납하고 있다. 특히 知系와 來母字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B類에 속한다는 주장, A類에 속한다는 주장은 물론 A類와 B類 사이에 위치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EMC에서의 표기를 -ɯɾ-(-ɣ-)나 -ɯr-로 하고 있다. Baxter의 경우는 *r-color, *r-loss, *j-backing 이라는 일련의 규칙으로 *-r-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EMC에서의 표기를 -j- 나 -i- 로 하고 있다.

Baxter의 경우 -r-이 그냥 탈락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이 탈락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j-backing은 사실상 鄭張尙芳의 ɯi > i 와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Baxter가 -r-이 탈락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두 설 모두 EMC의 B類 介音이 [i]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데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兪敏 등이 말하는 [ɹ] 또한 上古音의 介音 -r- 자체는 아니다. 그것이 子音性을 상당부분 벗어나 이루어진 卷舌性의 音色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i- 介音과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i]와 유사한 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우리는 위의 r介音說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r-과 中古 B類介音의 성질을 결론하면 다음과 같다.

분명 上古시기엔 자음적 성격이 강한 流音(*-r-)의 상태에 있었고 그 후 이것이 後化하여 점차 자음의 성격을 탈피했으며(시기적으로 東漢이후라 할 수 있고 復聲母가 점차 없어지던 시기이다), 切韻時代에 이르러서는 모음에 가까운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3) r介音說의 효용성

지금은 重紐현상을 介音상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前期中古音에서 나타나는 重紐3等과 重紐4等의 介音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r介音說의 견해를 채택했을 때에 어떠한 이론상의 이점을 갖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1) 舌齒音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3等韻 중 重紐를 포함하고 있는 韻類를 李榮(1956)은 寅類라 칭한다. 지금까지

이 寅類에 대한 분류가 重紐연구의 기초가 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일반적으로 重紐韻 내의 脣牙喉音이 두 類로 나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그 과정에서 重紐韻내의 舌齒音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로 의견이 나뉘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李榮과 董同龢 등은 B類가 한 類이고 A類가 舌齒音들과 같은 類라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陸志韋(1941) 등이 舌齒音 중의 卷舌音(知系와 照二系)이 B類와 같은 類이고 나머지가 A類와 같은 類라 주장하였고 현재는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심지어 潘悟雲(2000)은 舌齒音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기도 한데 다음과 같다.

A類와 同類, 互切 : 章系, 精系, 以母, 日母, 泥母字
B類와 同類, 互切 : 莊系, 云母字
A類, B類의 사이 : 知系, 來母, 娘母字

重紐韻 내의 舌齒音이 이처럼 분류되는 것은 곧 介音의 유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B類와 莊系·云母가 互切되는 것은 서로가 공동으로 어떤 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莊系의 경우는 卷舌性이고, 云母는 聲母가 ɦ-이다. 潘悟雲에 따르면 이들이 곧 中古시기 B類의 -ɯr-介音과 유사한 음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章系·精系 등의 경우 章系·日母는 口蓋音이고 精系는 -i-介音과 잘 어울리며 以母는 j 가 聲母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은 A類와 互切되고 있다. 이들 卷舌性 舌齒音은 上古시기 -r- 介音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中古로 오는 과정에서 권설음화하여 생성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舌齒音과 마찬가지로 重紐韻내의 脣牙喉音도 上古시기 같은 -r-介音을 갖고 있었다고 상성해야 이들의 관계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r-介音은 來母複聲母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의 卷舌性 舌齒音이 上古시기에 來母複聲母였다는 사실은 현재 각종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重紐3等字들이 上古시기에 역시 來母複聲母였다는 증거 또한 발견되고 있다. 아래는 鄭張尙芳(1984, 1997)이 제시한 자료이다.(그의 3等韻 표시는 주요모음 위에 ˘를 달아서 나타내고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생략한다.)

i) 諧聲 : 禁 krɯm, 泣 krup
京 krang, 品 phrum

ii) 通變 : 命 mreng - 令 reng, 冰 prɯng - 凌 rɯng, 馮 brɯng - 陵 rɯng
史使 srɯ - 吏 rɯ, 稟 prɯm - 廩 rɯm, 矜 krɯng - 鰥 krun

iii) 分讀 : 筆 prut - 不律 p-rut, 凭 brɯng - 馮陵 b-rɯng

iv) 親屬語同源詞

幾 *kri - 藏文 khri(床, 座, 案台)
禁 *kɯms - 藏文 khrims(法律)
饉 *grɯns - 藏文 bkren(貧困, 飢餓)
變 *prons - 藏文 ɦphrul
驚 *kreŋ - 泰文 kreeŋ(驚)
臉 *krem - 藏文 ɦgram(臉頰)
泣 *khrɯb - 藏文 khrab(哭泣者)
蔭 *?rɯms - 藏文 rum(背陰處)
擎 *greŋ - 藏文 sgreŋ(擧起)
敬 *kreŋs - 泰文 greeŋh(嚴格的)

(2) 重紐의 上古 내원관계의 설명에 효과적이다.

董同龢(1965) 및 李新魁(1984), 潘悟雲(2000) 등의 논의를 살펴보면 重紐3等과 重紐4等이 각기 上古의 내원이 달랐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공통적으로 重紐3等과 純3等, 重紐4等과 純4等의 공동내원관계를 언급하였다. 潘悟雲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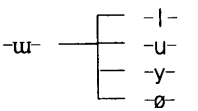
重紐韻	同源관계	同源한 上古韻部
脂	重3, 純3	微$_1$ (ɯl), 微$_2$ (ul), 物$_1$ (ɯts), 物$_2$ (uts)
祭	重4, 純4	祭$_2$ (ets)
	重3, 純3	祭$_1$ (ats), 祭$_3$ (ots)
眞	重3, 純3	文$_1$ (ɯn), 文$_2$ (un), 物$_1$ (ɯt), 物$_2$ (ut)
仙	重4, 純4	元$_2$ (en), 月$_2$ (et)
	重3, 純3	元$_1$ (an), 元$_3$ (on), 月$_1$ (at), 月$_3$ (ot)
淸(庚)	重4, 純4	耕 (eŋ)
鹽	重4, 純4	談$_1$ (em)
	重3, 純3	談$_2$ (am)

그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볼 때, 결국 A類와 B類가 각기 上古시기에 서로 다른 主要母音을 갖고 있었다가 中古(EMC)시기로 오면서 서서히 같은 主要母音을 갖게

되어 하나의 韻目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純3等과 가까웠던 B類 및 純4等과 가까웠던 A類가 어떤 원인에 의해 원래의 관계를 벗어나 같은 韻目에 놓이게 되었는가? 먼저 A類의 경우는 3等性의 介音인 -j-의 생성에 따른 음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純4等이 ≪切韻≫시대 및 上古시기에 介音이 없었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 추세인지라 분명 A類의 분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설정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Pulleyblank, 鄭張尙芳 등이 3等의 介音이 上古이후에 나타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돕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B類가 어떻게 純3等과 분리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바로 이점을 설명하는데 있어 介音 -r-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3) 2等介音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일찍이 雅洪托夫가 上古의 2等字에 介音-r-이 있고 이것이 複聲母로 설명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李方桂(1971)도 上古의 2等韻字에 介音-r-이 있고 이것이 中央化作用을 한다고 하였으며 Bodman 역시 2等字의 複聲母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介音-r-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上古시기 2等字에 介音-r-이 있다는 설이 일반화된 상태이다. 최근에 潘悟雲(1994) 등이 現代漢語의 方言에 나타난 2等字들의 변화 양상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2等字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는 中古시기의 2等 介音을 -ɯr-라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곧 鄭張尙芳이 말한 다음과 같은 변화규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r > ʏ > ɯ̟ > ɯ > ɨ > ɨ

그리고 r > ʏ 의 변화는 李方桂에 따르면 실제로 武鳴話語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2等字가 上古시기에 -r-介音을 갖고 있었고 複聲母였으며 그 介音이 현대 방언

에서 위와 같이 나타난다면 重紐3等의 介音 또한 충분히 그와 동일한 양상이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론의 일관성을 꾀할 수 있게 된다.

(4) r介音說의 문제점

위에서 우리는 r介音說의 이점을 살펴보았으나 한편으로 재고의 여지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r介音說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는 複聲母說의 확실성이다. 20C 현대음운학 연구의 초기부터 複聲母說은 제기되어 왔으며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上古音의 문제들을 이것으로 설명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것의 실제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사실상 複聲母說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자료의 상당부분이 漢語외적인 것이라 다분히 傍證的인 측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방 언어적 사고방식을 漢語에 까지 무리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과연 重紐3等字가 모두 上古시기에 複聲母였는가하는 점이다. 重紐3等字에 r介音이 있다는 말은 결국 그들이 모두 來母複聲母였다는 말인데 현재까지 제시된 複聲母로서의 증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것은 몇 가지 複聲母적인 자료를 가지고 전체 重紐3等字에 확장을 시킨 비약의 가능성을 남긴다. 그것은 한편으로 重紐현상의 원인을 너무 'r介音'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빚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일부에선 重紐현상이 上古에서 中古로 오는 동안 표준어와 방언의 융합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설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重紐현상의 원인은 충분히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4. 나오는 말

重紐문제를 介音의 차이로 보는 설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介音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는 위와 같은 r介音說의 관점을 이용할 수 있다. 최초로 上古漢語의 2等에 介音 -r-의 존재성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조해 왔다. 이것을 가지고 上古에서 中古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설음(莊系와 知系)의 문제도 해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r介音說은 이것을 더 확장하여 그동안 난제로 여겨져 왔던 重紐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이론 설정과 증거의 불충분은 r介音說의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만약 r介音이 모든 重紐3等字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들에 한해서 또다시 다른 측면의 설명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龔煌城, <從漢藏語的比較看重紐問題>, ≪聲韻論叢≫, 제6집, (臺北, 1997.)

董同龢, <廣韻重紐試釋>, 歷史語言研究所集刊, 제13본, 1945.

麥 耘, <論重紐及≪切韻≫的介音系統>, ≪語言研究≫, 제2기, 1992.

———, <星橋先生在音韻學研究上的成就>, ≪李新魁教授紀念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8.)

施向東, <玄奘譯著中的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言>, ≪語言研究≫, 제1기, 1983.

———, <上古介音-r-與來紐>, ≪音韻學研究≫, 제3집, (北京: 中華書局, 1994.)

王靜如, <論開合口>, ≪燕京學報≫, 제29기, 1941.

———, <論古漢語之顎介音>, ≪燕京學報≫, 제35기, 1948.

俞 敏, <等韻溯源>, ≪俞敏語言學論文集≫1999년, 原載≪音韻學研究≫, 제1집, 1984.

陸志韋, <三四等與所謂喻化>, ≪燕京學報≫, 제26기, 1939.

李方桂, <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1971.)

李新魁, <重紐研究>, ≪李新魁自選集≫, (鄭州: 大象出版社, 1999.)
原載≪語言研究≫. 제2기. 1984.

張 琨, <古漢語韻母系統與切韻>, 1976, 張賢豹 譯, ≪漢語音韻史論文集≫, 1987

鄭仁甲, <論三等的j介音-兼論重紐>, 1984, ≪音韻學研究≫, 제3집, (北京: 中華書局, 1994.)

鄭張尙芳, <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 ≪溫州師院學報≫, 제4기, 1987.

———, <重紐的來源及其反映>, ≪聲韻論叢≫, 제6집(臺北: 學生書局, 1997.)

周法高, <廣韻重紐的研究>, 歷史語言研究所集刊 제13본, 1945.
許寶華, 潘悟雲, <釋二等>, ≪音韻學研究≫, 제3집, (北京: 中華書局, 1994.)
馮 蒸, <論莊組字與重紐三等韻同類說>, ≪漢語音韻學論文集≫,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7.)
文璇奎, <重紐考論>, ≪漢語音韻論集≫, (서울: 新雅社), 原載≪中國人文科學≫, 제4집, 1985.
崔玲愛, <韓國漢字音에 나타난 重紐현상과 해석>, ≪中國言語研究≫, (서울: 학고방, 1999.)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上海教育出版社, 2000.)
邵榮芬, ≪切韻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楊劍橋, ≪漢語現代音韻學≫,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8.)
余迺永, ≪上古音系研究≫, (香港: 香港中文大學出版社, 1985.)
陸志韋, ≪古音說略≫, (臺北: 學生書局, 1947.)
李 榮, ≪切韻音系≫, (北京: 科學出版社, 1956.)
黃典誠, ≪切韻綜合研究≫, (厦門大學出版社, 1994.)
崔玲愛, ≪中國語音韻學≫, (서울: 통나무, 2000.)
藤堂明保, ≪中國語音韻論≫, (東京: 江南書院, 1957.)
E.G.Pulleyblank, *Middle Chinese*, Vancouver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W.H.Baxter,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NewYork, 1992.

중심어 : 重紐, 介音, r介音說, 複聲母, 上古音